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307

**Updated July 14,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5
- BC Sales Report	
Tankers	9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6
STL News & Information	18
Contact Information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ISSUE & TREND

### 1. "배에서 내리게 해달라"... 선원교대 막힌 해운업계 비상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ILO는 선박 체류를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다. 세계 각국의 항구마다 입출항과 승하선 통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배에서 내리더라도 2주 이상 격리해야 하는데 다, 귀국 항공편도 없는 실정이다.

선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실정으로 선박 안전은 물론 해운항만 물류시스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에서 현재 40만명의 선원이 교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원 교대는 1월에 비해 67%(4월기준) 줄어들었다. 지난 1월 427명에서 2월 333명, 3월 237명, 4월 13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 인도 파나마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는 우리 선원들의 교대를 허용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다. 업계에선 항만 당국의 선원 하선 금지 조치로 자칫 1년 6개월 이상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사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통 승선기간을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로 계약한다.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선원은 즉시 배에서 내려야 하고 선박도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KMI는 승선 지연이 장기화되면 선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선박 사고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적 요인에 의한 전체 선박 충돌사고가 96.2%를 차지했다. 선원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작업 중 안전사고뿐 만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선원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코로나로 해외 항만에서 선원들의 하선이 불가능하거나 교대가 불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장기 승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선원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I. ISSUE & TREND

중장기적으로는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독일 국적 유조선 1척이 근무시간 초과로 운항 거부에 들어가는 등 선원 교대 문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해운업계는 선원 교대 경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선원의 필수근로자 지정과 조속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와 IL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해 운송 관련 근로자들을 필수근로자로 지정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수근로자 지정으로 운송·물류와 관련된 선원 등을 대상으로 각 국가 이동을 자유롭게 허가하고 선원 관련 서류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KMI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운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까 봐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선원은 필수근로자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 만큼, 선원을 필수근로자로 명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 상반기 세계 선박 발주량 269 척... 2010년 이후 최저치

올해 상반기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주량은 269척(575만 CGT·총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42% 수준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로, 조선업 시황이 좋지 않았던 2016년 상반기(766만 CGT·423척)와 비교하더라도 25% 감소했다.

올해 1~6월 국가별 누계 수주 실적은 중국이 1위로 351만 CGT(145척·61%)였다. 뒤이어 한국 118만 CGT(37척·21%), 일본 57만 CGT(36척·10%)이 2,3위를 차지했다.

다만 1척당 수주단가는 한국이 더욱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초대형 선박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여줬다. 한국은 올해 수주 선박수 37척, 수주액 30억달러를 기록했고 중국은 69억달러, 145척이었다. 한국의 척당 수주 단가(0.8억달러)는 중국(0.5억달러)에 비해 1.6배 높았다.

## I . ISSUE & TREND

클락슨 리서치는 최근 3년간 누계선박 발주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누계 선박 발주량은 2018년 1820만 CGT에서 2019년 1379만 CGT로 2020년 575만 CGT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선종별 발주 흐름을 보면, A-MAX급 유조선의 발주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반면, 초대형 유조선(VLCC), 컨테이너선, 벌크선 및 대형 LNG선(14만m<sup>3</sup>)의 발주량은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계 인도량도 덩달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6월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7만 CGT(21%) 감소한 1382만 CGT였다. 6월 기준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2613만 CGT(37%), 한국 1976만 CGT(28%), 일본 954만 CGT(14%) 순으로 중국이 가장 많았다.

다만 조선업계는 하반기 모잠비크와 러시아 등에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시황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노바텍은 당초 발주 계획이었던 15척의 쇠빙 LNG선 외에 추가로 10척을 더 발주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도 연내 다수의 LNG선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잠비크 LNG선 발주 규모를 16척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8척씩 나눠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3.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중개업 동반성장 위해 두 팔 걷어

국내 해운산업의 재건과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중개업협회가 해운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공사는 지난 9일 서울 사무소에서 '해운중개업 시장 활성화 및 해운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해운뿐 아니라 해운중개업, 해상보험, 선급 등 해운 연관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함께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국내·외 해운산업 현장 정보 교류 △해운실무교육 △해운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I. ISSUE & TREND

---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간 협력강화를 통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해운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정호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은 "최근 외국계 해운중개업체들의 국내 진출과 해운중개업 시장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이 해운산업과 해운중개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사는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해운시황분석 전문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해운 연관산업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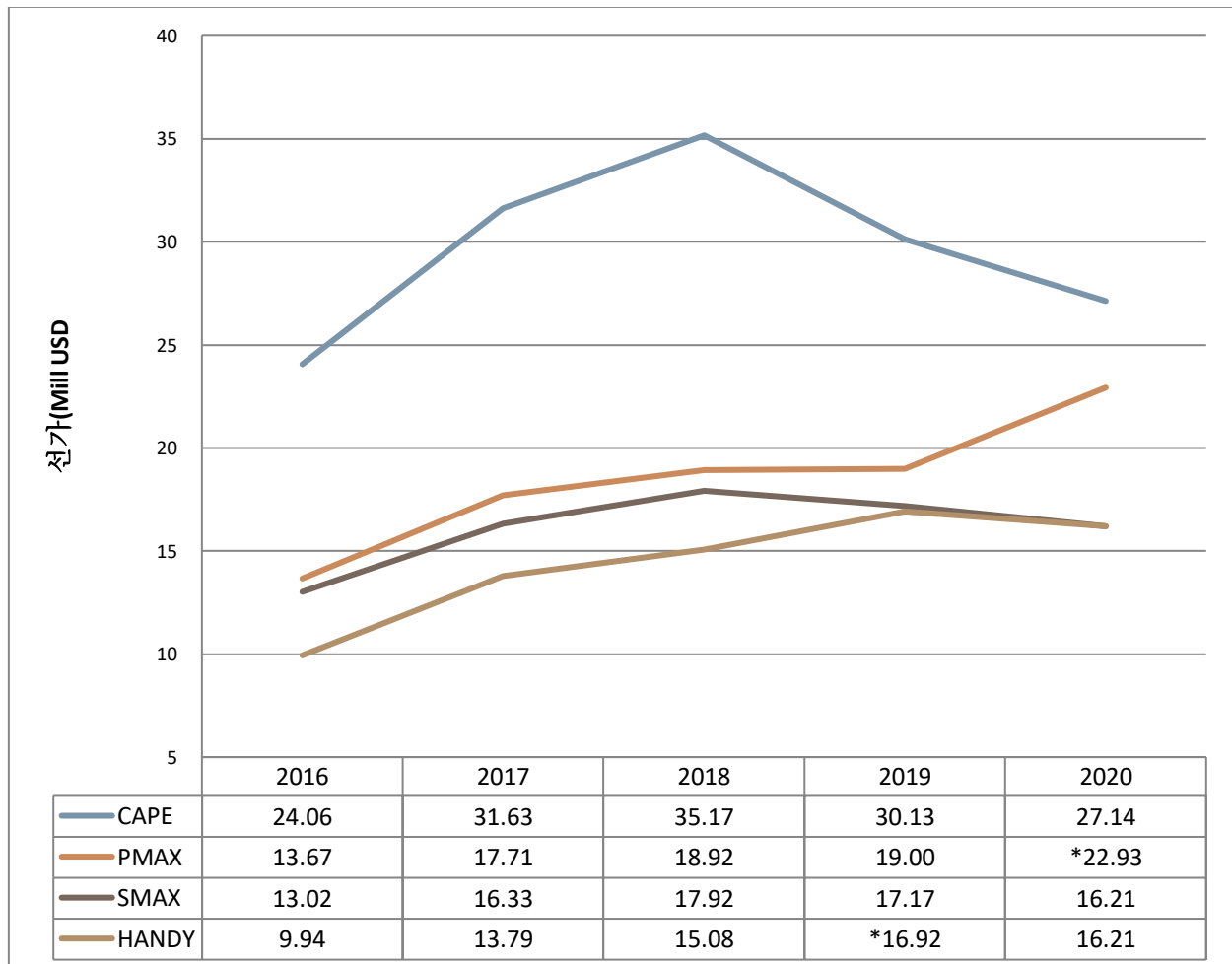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b>Capesize 180K</b>	24.06	31.63	35.17	30.13	27.14
	-24.99%	31.43%	11.20%	-14.34%	-9.90%
<b>Kamsarmax 82K</b>	13.67	17.71	18.92	19.00	*22.93
*19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20.68%
<b>Supramax 58K</b>	13.02	16.33	17.92	17.17	16.21
	-16.91%	25.44%	9.69%	-4.20%	-5.55%
<b>Handysize 37K</b>	9.94	13.79	15.08	*16.92	16.21
*18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4.15%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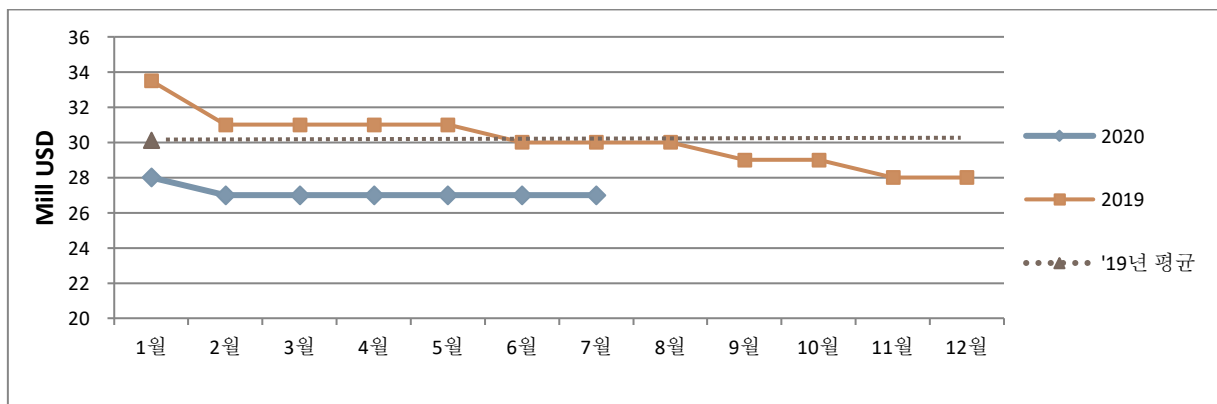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14
		전월대비	0.0%	-3.6%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16.4%	12.9%	12.9%	12.9%	12.9%	10.0%	10.0%			-9.9%
	KMAX 82K	선가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50			22.93
		전월대비	23.7%	-2.1%	0.0%	0.0%	0.0%	-2.2%	0.0%			-
		전년대비	23.7%	21.1%	21.1%	21.1%	21.1%	18.4%	18.4%			20.7%
	SMAX 58K	선가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50			16.21
		전월대비	0.0%	-2.9%	0.0%	0.0%	-3.0%	-3.1%	0.0%			-
		전년대비	-5.6%	-2.9%	-2.9%	-2.9%	-5.9%	-8.8%	-8.8%			-5.5%
	HA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5.00			16.21
		전월대비	3.0%	0.0%	0.0%	0.0%	-8.8%	-3.2%	0.0%			-
		전년대비	0.0%	0.0%	0.0%	0.0%	-8.8%	11.8%	11.8%			-4.2%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00	29.00	30.13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17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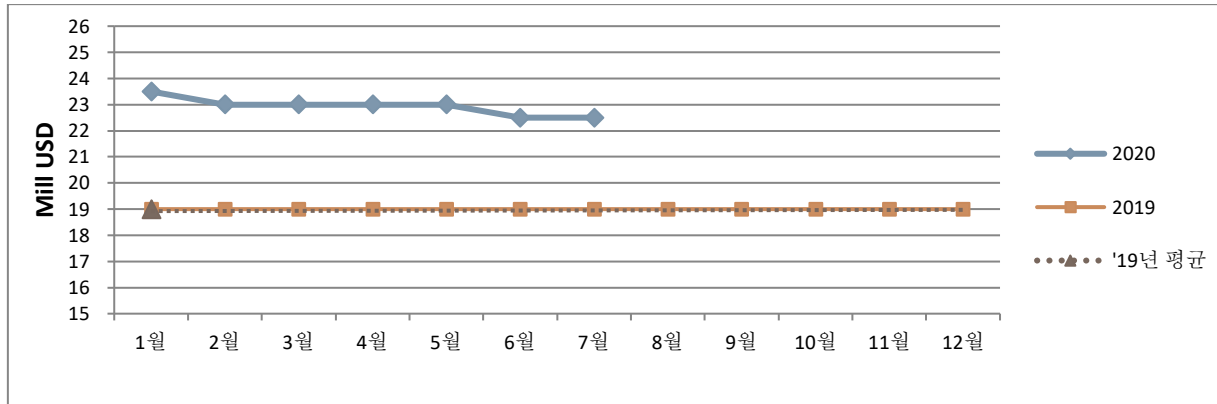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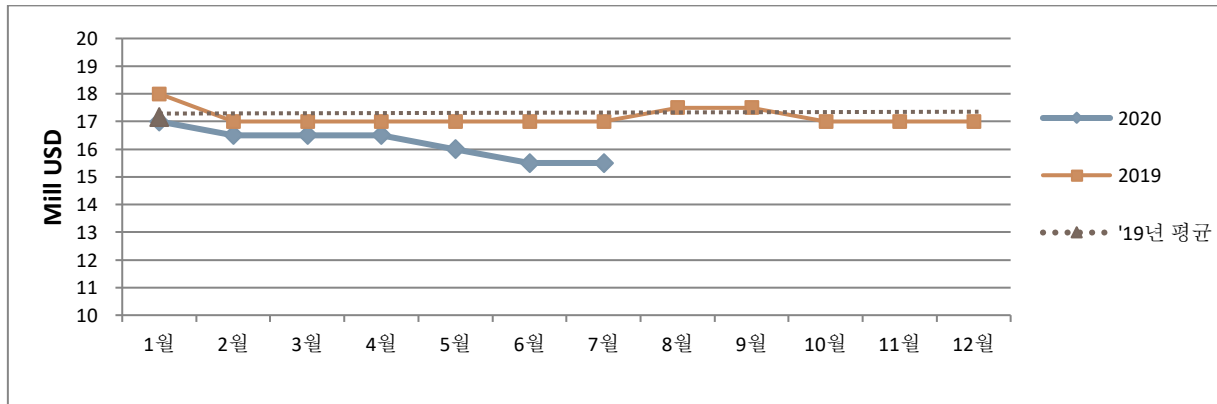


##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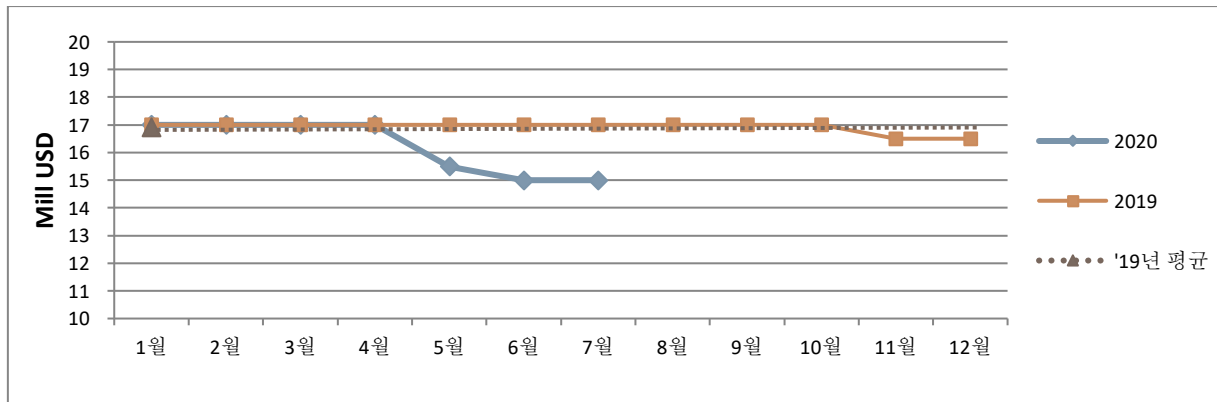
###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GREAT CHALLENGER	176,279	2005	JAPAN	B&W		11.3	Chinese buyer, SS/DD due Nov '20
BC	MEDI LAUSANNE	83,002	2006	JAPAN	B&W		9.7	Greek buyer
BC	LORETO	76,737	2004	JAPAN	B&W		8	Undisclosed buyer
BC	HARVEST PLAINS	52,549	2001	JAPAN	SULZ	4x25	4.9	Undisclosed buyer
BC	FAVORITA	52,292	2005	PHILIPPINES(JAP)	B&W	C 4x30t	14	Undisclosed buyer
BC	ROSITA	52,292	2004	PHILIPPINES(JAP)	B&W	C 4x30t		
BC	GLOBAL HEART	32,964	2012	JAPAN	MITSU	C 4x30.5t	9.25	Turkish buyer
BC	MARATHA PARAMOUNT	32,081	2011	JAPAN	MITSU	C 4x30t	8.5	Greek buyer, BBCHP
BC	MARATHA PRUDENCE	32,070	2012	JAPAN	MITSU	C 4x30t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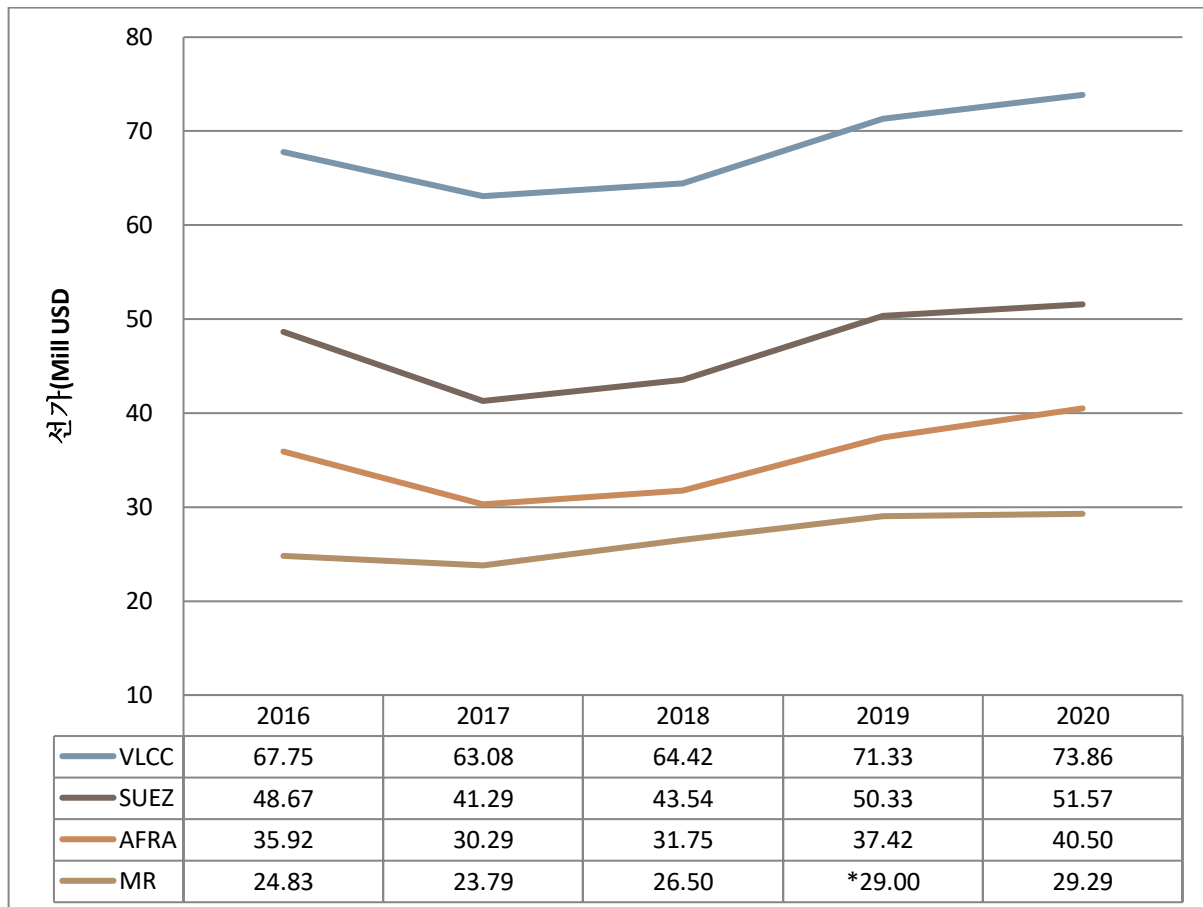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3.86
	-16.15%	-6.89%	2.11%	10.73%	3.54%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51.57
	-18.34%	-15.15%	5.45%	15.60%	2.46%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40.50
	-21.24%	-15.66%	4.81%	17.85%	8.24%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4.83	23.79	26.50	*29.00	29.29
	-10.35%	-4.19%	11.38%	9.43%	.99%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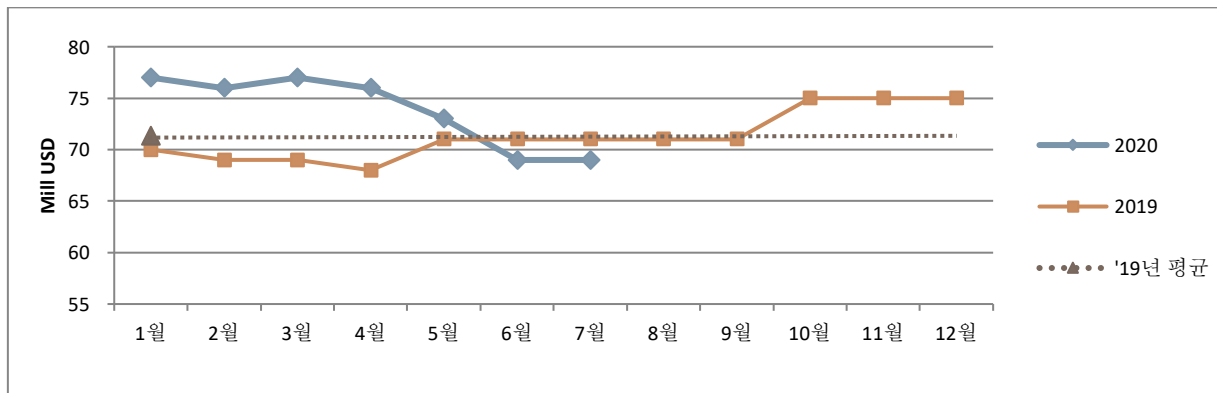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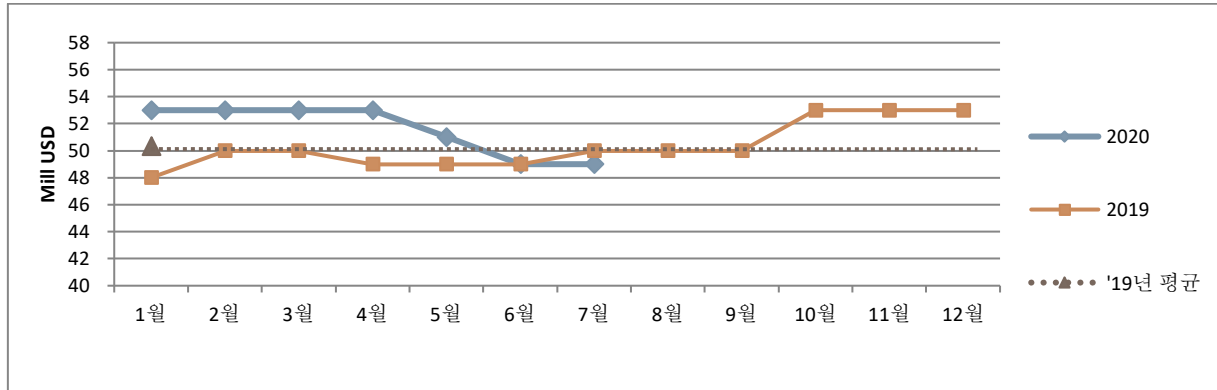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69.00			73.86
		전월대비	2.7%	-1.3%	1.3%	-1.3%	-3.9%	-5.5%	0.0%			-
		전년대비	10.0%	10.1%	11.6%	11.8%	2.8%	-2.8%	-2.8%			3.5%
	SUEZ 160K	선가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9.00			51.57
		전월대비	0.0%	0.0%	0.0%	0.0%	-3.8%	-3.9%	0.0%			-
		전년대비	10.4%	6.0%	6.0%	8.2%	4.1%	0.0%	-2.0%			2.5%
	AFRA 105K	선가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7.50			40.50
		전월대비	0.0%	3.7%	0.0%	0.0%	-5.9%	-6.3%	0.0%			-
		전년대비	17.1%	21.4%	21.4%	21.4%	14.3%	1.4%	-1.3%			8.2%
	MR 51K	선가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7.50			29.29
		전월대비	0.0%	3.3%	0.0%	-3.2%	-6.7%	-1.8%	0.0%			-
		전년대비	7.1%	10.7%	10.7%	7.1%	0.0%	-5.2%	-8.3%			1.0%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29.00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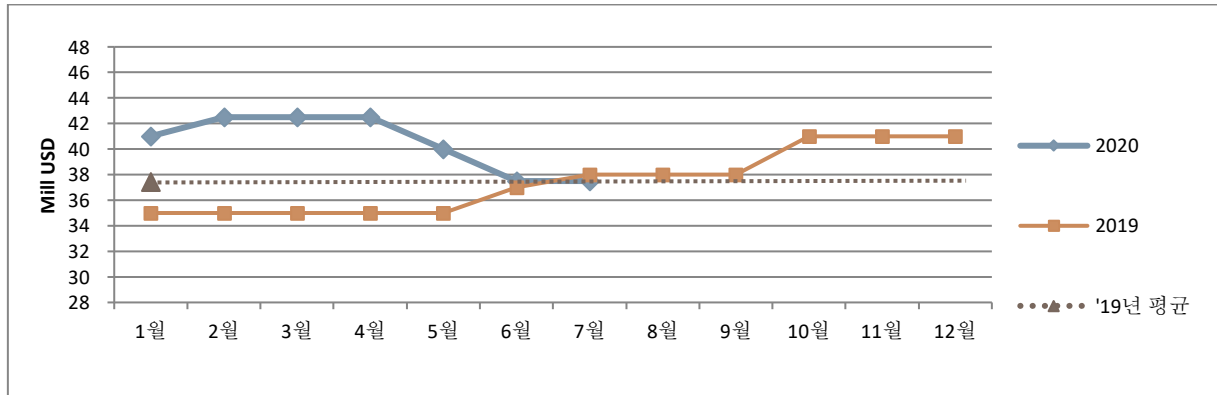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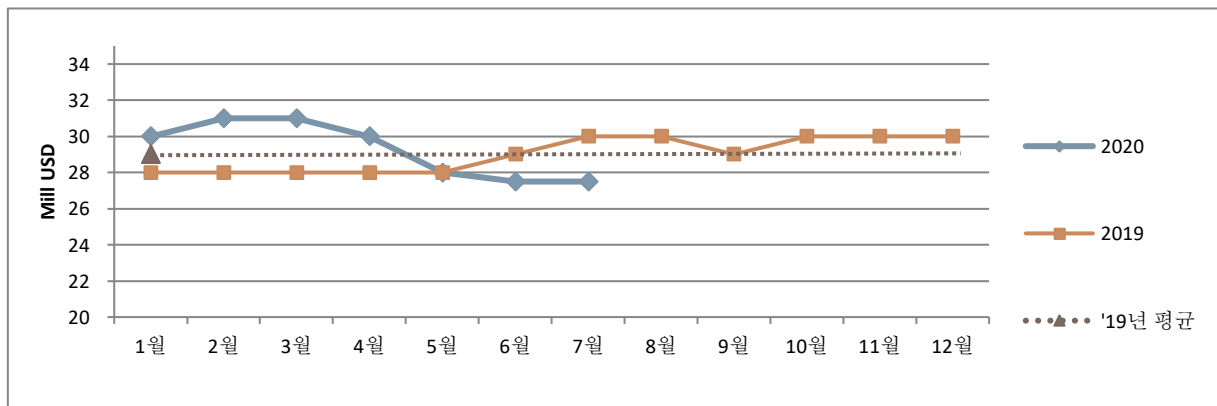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HRA	321,300	2011	KOREA	WAR T		48	Greek buyer, BWTS/Scrubber on order included
TANKER	HIGH PROGRESS	51,300	2005	KOREA	B&W		12.5- 12.95	Turkish buyer
TANKER	HIGH PERFORMANCE	51,300	2005	KOREA	B&W		12.5- 12.95	
TANKER	SEAMULLET	32,238	2001	GERMA NY	MAN		6.5	UAE buyer
OIL /CHEM	AGILITY	44,970	1997	KOREA	B&W	3	5	Chinese buyer
LPG	FUJI GAS	29,458	1995	JAPAN	B&W		8	Undisclosed buyer
LPG	NIJINSKY	16,967	2008	KOREA	B&W		30.5	Indonesian buyer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MOL PARTNER	71,816	2005	JAPAN	B&W	6350	TEU	9.5	Greek buyer, SS/DD due Aug '20
CONT	HOHEWEG	11,318	2007	CHINA	MAN	966	TEU	2.1	German buyer(Jens & Wa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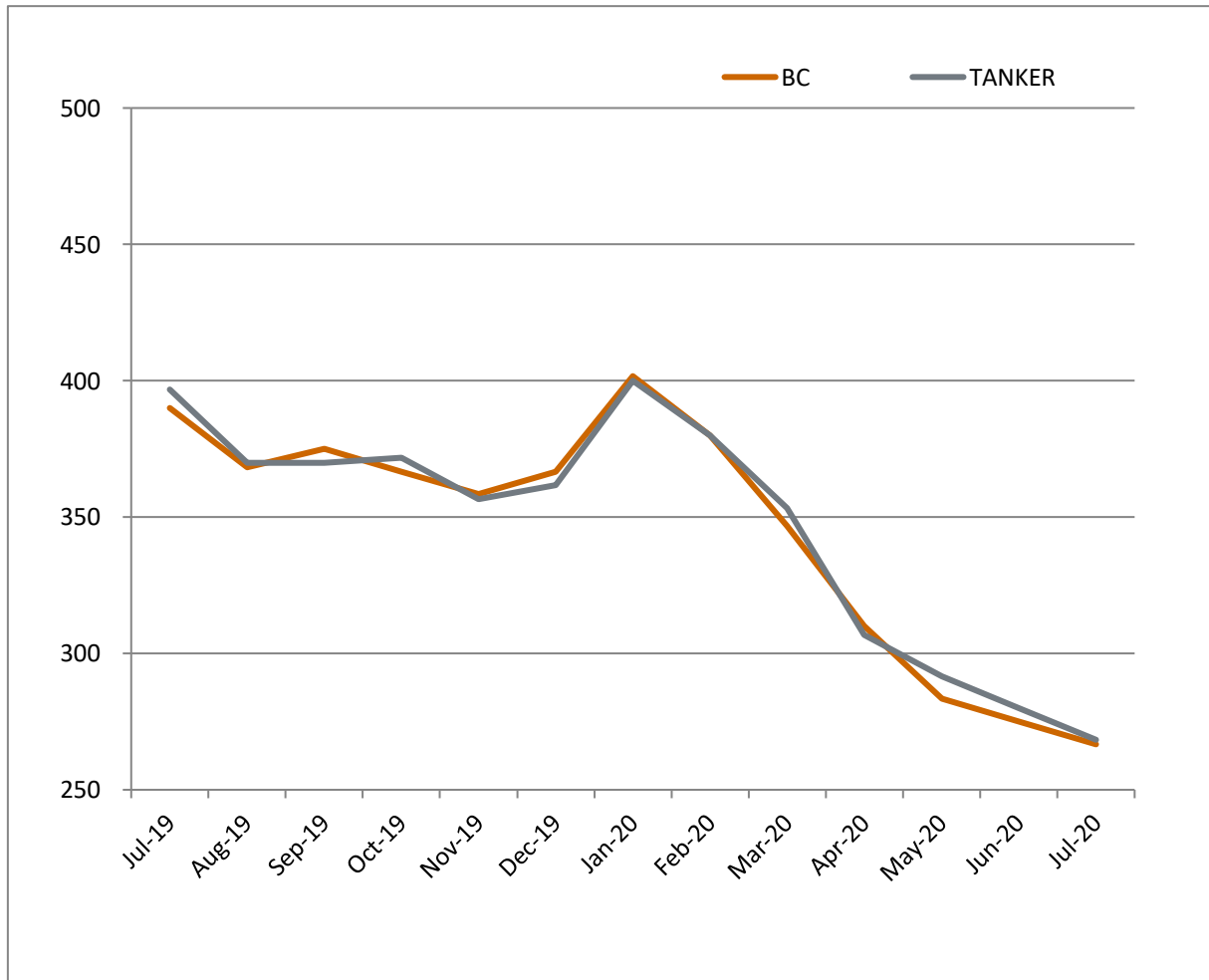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7 월	2020 년 7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325.71	-17.8%	396.67	268.33	-4.2%	-32.4%
BC	440.63	18.8%	398.75	-9.5%	323.33	-18.9%	390.00	266.67	-3.0%	-31.6%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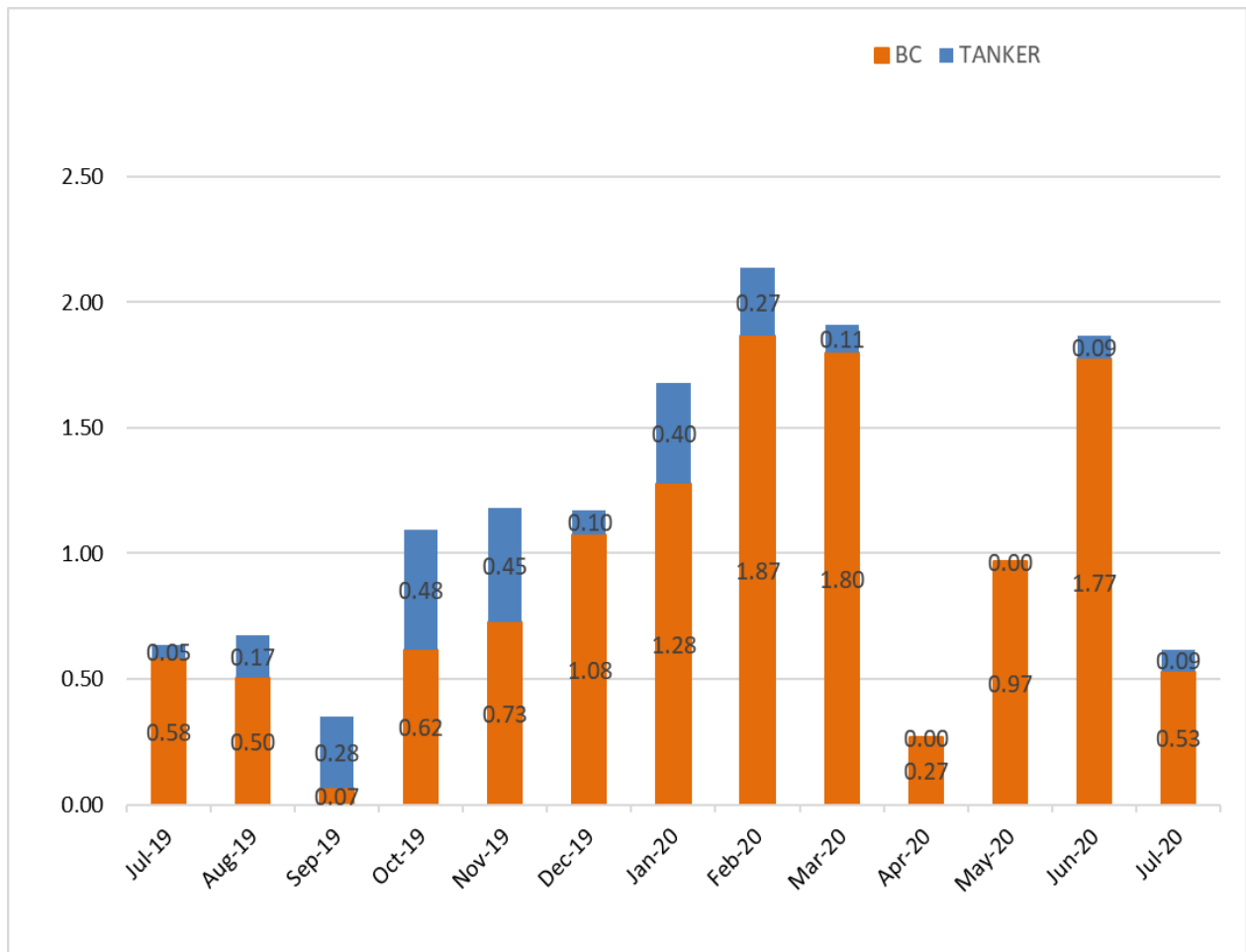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19 년 7 월		2020 년 7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54	97	0.96	27.2%	40	41.2%	0.05	4	0.09	60.6%	3	-25.0%
BC	7.45	116	8.48	113.9%	71	61.2%	0.58	14	0.53	-8.8%	2	-85.7%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V -1.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YM PINE	68,615	22,885	2001	TAIWAN	WART	280	AS IS Hong Kong, HKC Green Recycling
CONT	YM GREEN	68,413	22,885	2001	TAIWAN	WART	280	AS IS Hong Kong, HKC Green Recycling
CONT	E.R.SEOUL	67,600	27,400	2000	KOREA	B&W	303	INDIA
CONT	EVER DIVINE	55,604	21,731	2001	JAPAN	SULZ	280	AS IS Hong Kong, HKC Green Recycling
CONT	EM OINOUSSES	32,300	11,440	2000	KOREA	SULZER	344	PAKISTAN
CONT	ADMIRAL VENTURE	5,700	2,393	1995	GERMAN Y	ETC	285	INDIA
MPP	ELIT	11,723	4,360	1992	SOUTH AFRICA	MAK	310	PAKISTAN
PCC	OCEAN HIGHWAY	55,604	14,240	2001	JAPAN	B&W	270	INDIA, HKC Green Recyc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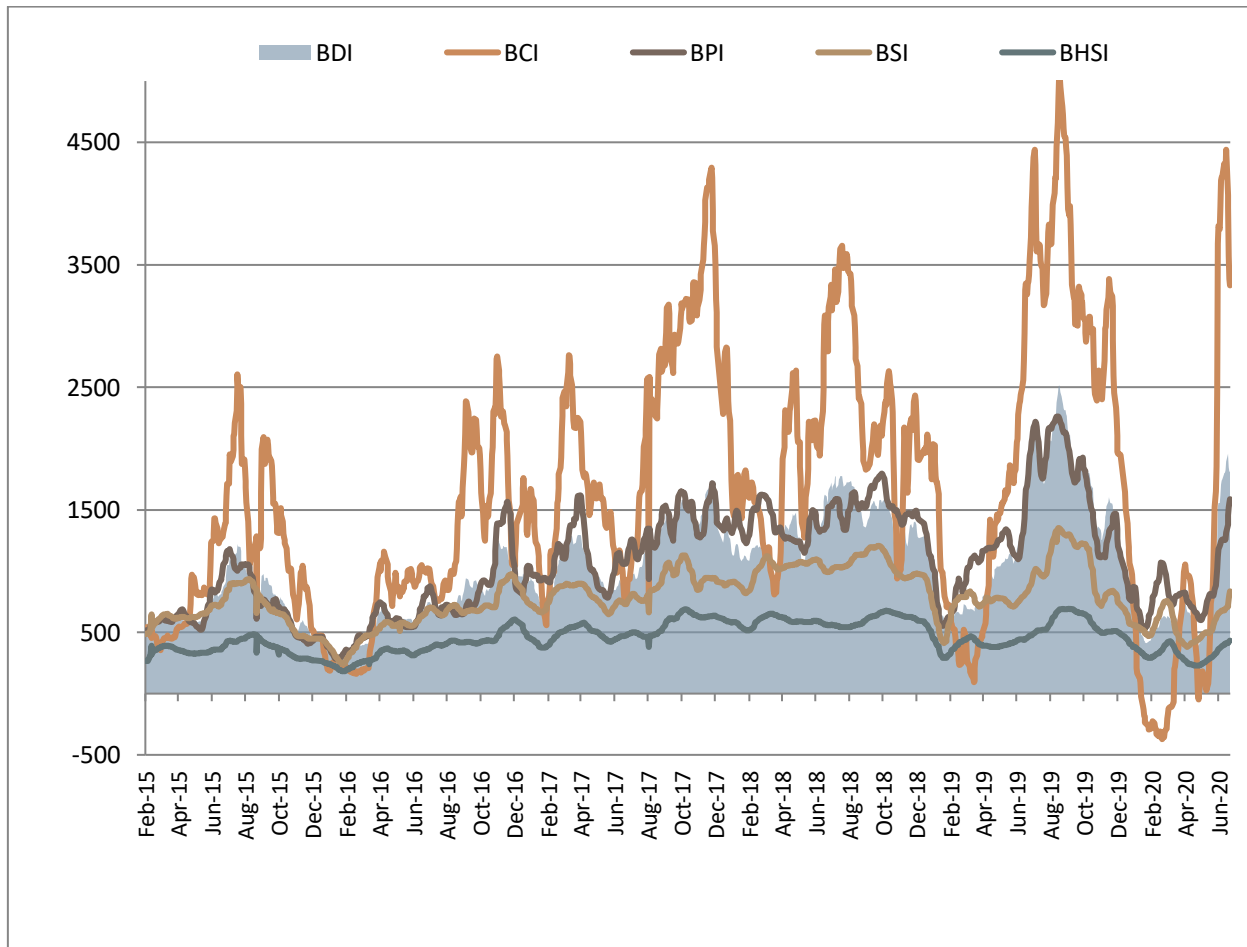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0-07-10	2020-07-03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810	1894	▼-84.00	2518	290
BCI	3333	4440	▼-1,107.00	5043	-372
BPI	1587	1316	▲271.00	2262	282
BSI	835	701	▲134.00	1351	243
BHSI	435	412	▲23.00	692	183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267.00	▲10.00	25.50	▼-223.00	264.00	▲24.00
MGO	382.50	▲20.50	357.50	▼-4.50	378.00	▲24.50
LSMGO	380.50	▲1.00	355.00	▲4.00	-	-
VLSFO	330.50	▼-4.00	300.00	▼-0.50	298.00	▼-5.50

❖기준일 : 7 월 10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0-07-10	2020-07-03	CHANGE
미국 달러	1194.50	1201.00	▼-6.50
일본 엔(100)	1114.06	1116.85	▼-2.79
유로	1348.23	1349.92	▼-1.69
중국 위안	171.01	169.85	▲1.16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STL NEWS & INFORMATION

### [시사상식] 빅테크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 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해외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다. 빅테크는 은행 고유의 역할이었던 대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높은 기술력으로 빠르게 제공한다. 아울러 빅테크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넘어 보험 상품, 증권 다양한 분야로 침투하고 있다. 앞서 수집한 검색 결과 정보는 전자상거래 영역과 결합되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대한다. 다양한 분야로 침투한 빅테크는 금융산업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 빅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긍정적 변화

- 저비용 자본조달을 통해 정보비용 감소 및 거래비용 감소
-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관련기사] 빅테크의 파격...보험 가입 권유 사라지나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푸시(PUSH)'형 영업 중심의 보험 판매 문화에 지각변동을 불러오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가입 권유에 마지못해 가입했던 것에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보장 니즈를 파악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풀(PULL)'형 영업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토스에 이어 대표적 빅테크기업인 네이버도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을 통해 보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NF 보험서비스' 법인 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만들 GA가 앞서 보험 시장에 진출한 토스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스가 만든 GA인 토스인슈어런스는 파격적인 실험으로 보험 영업 문화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 VI. STL NEWS & INFORMATION

---

우선 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스 앱의 '내 보험 분석 받기'를 통해 분석을 신청하면 보장분석 리포트와 함께 상담사가 배정된다. 상담사들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여기에는 영업 실적 압박을 받지 않는 정규직 설계사 제도의 역할도 한 몫 한다. 고객 만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토스 관계자는 "보험 시장의 판도를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토스인슈어런스의 포부"라며 "이에 따라 판매 실적에 연동해 인센티브를 받는 위촉직이 아닌 정규직 연봉제로 보험분석 매니저를 채용해 왔다"고 말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연말까지 신입 매니저 100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도 지난해 GA 라인센스를 가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인바이유를 인수하면서 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인바이유는 '클라우드 보험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며 다수의 고객들이 모일수록 더 좋은 혜택과 저렴한 가격의 보험이 설계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상하는 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나아가 비대면 영업에 특화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준비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토스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고객 성향에 맞춰 보험 영업 문화를 바꿔 나가고 있다"며 "푸시 마케팅 중심의 보험 판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험 판매 환경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푸시(PUSH) 마케팅 중심이었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영업 방식은 고객이 스스로 설계하고 가입하는 풀(PULL) 마케팅"이라며 "기존 푸시 영업 위주의 보험판매 시장에 '메기' 효과를 불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